

8 인터뷰-손혁상(공공대학원 교수) 코이카(KOICA) 이사장



손 이사장은 “소외되고 취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코이카의 본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코이카 제공)

“경희에서의 경험은 코이카 이사장직의 핵심 자산”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손혁상 교수(공공대학원)가 지난해 12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신입 이사장에 부임했다. 손 이사장은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센터장, 공공대학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우리학교 대외부 총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코이카는 1991년 4월 1일 설립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대표기관이다.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손 이사장은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타파하고 복리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이카의 사업유형은 ▲시민사회협력 ▲글로벌 연수 ▲국제기구협력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 ▲국제질병 퇴치기금 운영 등으로 나뉜다. 손 이사장은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44개국에 코이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이카의 중장기 경영전략 4대 방향 중 첫 번째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촉진’이다. 손 이사장은 “코이카는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환경(Planet), 4P를 핵심가치로 삼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협력을 이행하는 기관”이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코이카의 미션이자 핵심가치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적인 목표로 ▲빈곤 종식 ▲굶주림 종결 ▲성 평등 ▲깨끗한 에너지 등 17개의 목표로 구성된다.

지난 3월 31일 코이카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손 이사장은 “협력국 주민 개개인,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코이카의 본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슬로건인 “leave no one behind(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었다.

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한 말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을 풀어낸 것이 맞다”며 “코이카가 지향하고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편적이고 인도적인 가치를 실현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에

대한 책무성도 지니기에 국가의 대외 전략과 정책 그리고 인도적 가치의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과도 연결되기에 ‘상생의 국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상생과 연대

손 이사장은 “코이카의 지난 30년간 성장은 개발도상국 주민들 및 다른 개발협력 파트너들과의 상생·연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진단키트, 음압 캐리어 등의 물자를 116개국에 지원했고 수혜자는 3,8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방역 제품이 수출됐고 한국 진단키트 업체가 해외 수출로 400여 개의 일

자리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개발협력의 진가가 발휘된 것이다.

상생과 연대는 국내에서도 이뤄졌다. 손 이사장은 “국내 주요 파트너로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가 있으며 해당 지역의 ‘플루리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와 섬세한 교류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를 발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전북 등에 위치한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지자체와 공적개발협력(ODA) 협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로부터의 밑거름

손 이사장은 우리학교에 몸담으며 지난 20년간 국제개발협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개발학이 생소하던 2000년대 중반부터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에서 개발학 관련 과목을 신규 개설해 강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2002년 <세계시민론>을 시작으로 <개발론>,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등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심화시킨 것이다. 또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접목하는 노력도 기울였다”며 “경희대학교에서 교육자, 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핵심적인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이사장은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할 당시, 한국YMCA전국연맹과 파트너가 돼 동티모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힘쓴 바 있다. 손 이사장은 “당시 동티모르 커피공정무역 자립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2개월간의 현지조사 이후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 커피공정무역사업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피스커피’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학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손 이사장은 “경희인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대학의 존재 이유와 경쟁력이 직업적 기초전문성 배양이라고만 보지 않는다”며 “특정 업종의 기술보다는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는 교육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하는 국익

지난해 코로나19로 코이카가 직접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은 전원 귀국했다. 손 이사장은 “현재 봉사단은 국내에 체류해 원격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삶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복귀’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처럼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감염병과 재난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생각할 것은 없지만, 올해 코이카가 특히 중점을 뒀야 하는 분야를 꼽자면 포스트코로나 대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이사장은 “일반적인 이익이나 시혜가 아니라 호혜적 차원에서 ‘상생하는 국익’을 추구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이카는 4P를 핵심가치로 삼아 개발협력을 이행한다.

(사진=코이카 제공)